



수도권

은행나무

## 거리 이름의 유래와 관련한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11-1  
**지정년도** 1971  
**관리기관** 서울  
**수령** 680년  
**수고** 31m  
**흉고둘레** 9.1m



서울 노원구 중계4동 산 36-2  
37° 39' 27.00" N  
127° 04' 50.00" E

불암산 기슭에 있는 보호수(서 11-1) 은행나무는 중계 4동 주민센터 인근의 산야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은행나무는 나무나이가 지정 당시(1971년) 625년이었으므로 2024년 680년이 되었다. 나무높이가 31m, 가슴 높이둘레는 910cm 정도로 측정되었다. 밑동둘레는 930cm 정도이다. 엄청난 크기의 은행나무는 여러 갈래의 뿌리가 한 몸이 되어 위로 솟아 있으며, 나무 갯이 숲속의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15m 너비로 퍼져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명성황후와 관련이 깊다. 명성황후(1851~1895)는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여주, 충주 등의 여러 곳에서 피신생활을 하다가 8월 1일 환궁을 한 바 있다. 명성황후가 여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더위를 떨기 위하여 이 은행나무 아래에 들렀다가 당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치성을 드렸던 성황목이다. 또한 이 은행나무를 비롯한 중계동의 은행나무는 예전의 은행리(은행동) 및 지금의 은행사거리 지명 유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은행사거리는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사거리이다. 원래 명칭은 불암사거리였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도로표지판에 은행사거리(줄임말은 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 마을에서 자손들이 번창 하지 않자 양평군의 용문사 은행나무에서 꺾어 온 가지를 심어서 정성껏 모셨더니 마을이 번창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 은행나무 덕분에 이곳을 은행마을(은행리, 은행동, 은행말)이라 부르게 되었고, 여기에서 은행사거리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그런데 은행사거리는 은행나무에서 유래하지만 금융업의 은행이 많이 들어선 거리로 부르기도 한다. 주민들은 이 은행나무를 성황목으로 여겨 안녕 및 소원성취를 빌고 있기 때문에 침을 뱉고 나무를 베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다. 이곳은 무속인들이 찾기도 한다. 불암산 초입에 위치한 곳이지만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어 큰 소리를 내거나 무구(무속인이 굿을 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레도구)를 사용한 기도는 어렵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나무를 극진히 보호할 것을 가르친다.